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승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녀 최영이 바르바라 (1819-1840)

서울에서 태어난 최영이는 아버지 최창흡과 어머니 손소벽을 따라 입교한 뒤, 평생 신앙에 충실하였다. 20세 때는 교우 조신철과 혼인하여 아들을 하나 두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났을 때, 최영이는 친정으로 피신하였지만 결국 친정 식구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어린 아들을 생각하는 모정으로 배교할까 두려워 아들은 친척에게 맡긴 후였다. 그는 남편이 중국에서 가져온 교회 서적과 성물 때문에, 포청에서 주리 두 차례와 태장 260대의 혹형을 당하였다. 하지만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고, 형조에서도 세 차례의 형문을 모두 이겨 냈다. 마침내 1840년 2월 1일, 홍영주, 이문우와 함께 당고개에서 22세의 나이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성화_구계숙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연중 제12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28(27), 8-9 참조

주님은 당신 백성의 힘이시며, 당신 메시아에게는 구원의 요새이시다. 주님,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 재산에 강복하시며, 그들을 영원히 이끌어 주소서.

제1독서

욥 38, 1-8-11

화답송

시편 107(106), 23-24, 25-26, 28-29, 30-31 (◎ 1 참조)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다.

○ 배를 타고 항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던 이들. 그들은 주님의 업적을 보았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았네. ◎

○ 그분 말씀에 사나운 바람 일자, 커다란 파도가 높이 솟았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바다 깊이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에 녹아내렸네. ◎

○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 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

○ 바다가 잠잠해져 기뻐하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그분은 이끄셨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

제2독서

2코린 5, 14-17

복음 환호송

루카 7, 16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마르 4, 35-41

영성체송

시편 145(144), 15 참조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혼돈의 물: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욥 38,8)



갈릴래아 호수

이스라엘 북쪽 갈릴래아 지역에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갈릴래아 호수”(마르 7,31), “킨네렛 바다”(여호 12,3) 등으로 칭해진 곳입니다. 이 호수는 분명 민물이지만 성경에선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대에는 소금기의 여부로 바다를 구분하지 않고 규모가 크면 담수여도 바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마태 14, 22-33)도 바로 이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기적은 오늘 제1독서인 욥기 38장과도 관련 깊은 사건입니다.

옛 이스라엘과 고대근동에서는 큰물을 위협적 존재 또는 혼돈의 세력으로 여겼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주로 생명수라는 긍정적 의미로 다가오기에, 물을 위협과 혼돈으로 여겼다는 말이 의아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은 양면성을 갖습니다. 적당히 있으면 생명수이지만, 너무 많으면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물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예가 천지창조를 서술한 창세 1장과 2장입니다.

먼저, 창세 2장에서는 물이 생명수입니다. ‘에덴동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 밑에서 솟아오르는 안개 같은 물이 지면을 촉촉하게 적셔주었다.’고 합니다(5-6절). 이는 창세 2장의 저작 배경이 물이 귀한 곳을 암시해 줍니다. 이를 테면, 영토의 절반이 광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땅 같은 곳 말이지요. 그에 비해, 창세 1장에서는 물이 위협적 존재로 등장합니다. 2절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모지와 어둠 그리고 심연의 물은 창조 이전의 혼돈을 상징하고, 주님의 영이 심연의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는 말은 그분이 혼돈을 제압하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태초의 혼돈을 내리누르며 세상의 질서를 잡아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가 한계에 달해 주님께서 세상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날엔 혼돈의 세력인 물이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큰 심연의 모든 샘 구멍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창세 7,11). 이는 심연의 물이 다시 세상을 덮어 주님께서 창조 때 확립하신 질서를 깨뜨렸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물이 위협적 존재, 곧 창조 질서를 뒤집을 수 있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독서에 나오는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욥 38,8)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조주 주님께서 혼돈의 물을 제압해 피조물 세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막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의 의미도 명확해집니다. 피조물들이 사는 물에 큰물이 침범하지 않도록 가두신 하느님의 구원 행위가 성자 예수님을 통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갈릴래아 호수는 예부터 이어진 이런 구원 역사에 대해 떠올리고 되새길 수 있는 성지입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제3장 열린 세계를 구상(構想)하고 싹트게 하기 ⑤ - 인간을 들어 높이는 보편적 사랑, 존엄과 인권

회칙 「모든 형제들」은 열린 세계를 구상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유와 평등을 함양하는 형제애로 ‘패들의 세계를 넘어서는’ 건전한 지역주의 정신을 제안하고, 동시에 개인주의(individualism)를 분명히 경계합니다: “개인주의는 우리를 더 자유롭고 평등하며 형제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이해관계들의 단순한 총합으로는 전체 인간 가족을 위한 더 나은 세계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세계화되고 있는 그 많은 질병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도 없습니다”(105항).

또한 인종주의(97항 참조)와 마찬가지로, 극단적 개인주의 역시 사회(집단)를 병들게 하는 ‘제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바이러스’라고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모든 일이 우리의 온갖 욕망, 특히 이득과 권력을 향한 욕망에 자유를 부여하는 거라 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간추린 사회교리」에선 이런 욕망이 이득과 권력을 위한 ‘죄의 구조들’(structures of sin)을 구축하고 영속시킨다고 진단합니다(119항 참조). 이 점에 관해, 회칙 「모든 형제들」은 ‘재화의 사회적 역할을 재구상하기’(118-127항)와 ‘제5장 더 나은 형태의 정치’에서 보다 깊이 성찰합니다.

회칙 「모든 형제들」은 ‘사람들을 들어 놓이는 보편적 사랑’(106-111항)에서, 인간의 존엄과 그 존엄에서 유래하는 일부 권리들의 보편성을 열린 세계를 구상하기 위한 넷째

조건으로 제안합니다. 사회적 우애와 보편적 형제애는 ‘누구도 예외 없이’ ‘언제 어디 어떤 조건에서든’ 한 사람을 존엄한 존재로 인정하게 해줍니다. 그의 존엄은 철학적으로 존재 그 자체에 내재하고 신학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존재에 부여된 것이기에, 절대적(보편적)이고 침해 불가하며 양도 불가합니다. 인간의 존엄은 기본 권리들(인권들)로 실현됩니다. 여기서 회칙은 누구에게나 존엄하게 살 권리와 온전하게 발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특별히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해 공동선 실현에 관여해야 할 국가의 임무와 역할을 강조합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태도들을 경계합니다. ① 우선, 존엄한 생활과 온전한 발전의 기회가 온전히 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취약한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의 투자를 수지가 맞지 않는 일로 보게 합니다. ② 둘째, 사회를 시장의 자유와 효율성이라는 척도로 운영하려는 태도인데, 이런 사회에선 약자를 위한 자리가 사라지며 형제애는 모호한 이상(理想)으로 머물고 맙니다. ③ 셋째, 개인주의적 권리 주장인데, 이는 개인의 권리들이 무제한적이라고 여김으로써 결국에는 갈등과 폭력을 일으킵니다. 개인의 권리들이 더 위대한 선, 공동선을 위한 연대로 조화롭게 질서 잡혀 있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인간적·형제적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기본적인 필수품뿐 아니라 그들이 최선을 다할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그 구성원들과 동반합니다”(110항). 🌀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창세 22,8)

수술 중 뇌 손상을 입는 의료 사고를 당해 의식장애 및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30대 여성 환자와 그 보호자를 위한 방문이었다. 누워 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던 환자의 어머니는, 수술 직전 간단한 수술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던 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다고 했다. 환자의 어머니는 아무런 차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게 가장 무섭고 힘이 든다며 그동안 딸과 함께 걸어왔던 고통의 시간에 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담당 의사가 과실을 인정한 덕분에 지난 몇 년간은 이 병원에서 머물 수 있었지만, 얼마 전 병원 측이 태도를 바꾸어 그만 나가달라고 노골적인 눈치를 주기 시작했다고 한다. 환자의 어머니는 그저 막막할 뿐 이제 따져 물을 힘도 나지 않는다며 힘없이 고개를 푹 수그렸다. 작고 마른 체구의 노인이 오랫동안 누워 있느라 근육이 다 빠져 뼈만 남은 딸의 곁에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다. 잘 키운 외동딸이 하루아침에 꼼짝없이 누워 있게 된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그런 딸을 이 연약한 노인이 언제까지 돌봐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내 가슴도 갑갑해진 것이다.

그때 환자가 숨이 막히는지 ‘컹컹’ 소리를 내면서 얼굴이 빨강게 달아올랐다. 그러자 환자의 어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환자의 머리맡에 있는 기계의 전원을 켜고 환자의 목에 관을 넣었다 뺐다 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더 고통스러운 몸짓을 보였지만 환자의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깊숙이 관을 넣어 환자의 목을 막고 있던 가래를 뱉아내었고, 환자는 이내 평온을 되찾았다. 그 짧은 시간, 나만의 착각이었을까? 조금 전까지 한없이 쪼그라들어 있던 노인은 간데

없고 마치 야전병원의 간호장교처럼 대답하고 활력 있는 환자의 어머니가 딸이 누워 있는 자리에 생명의 기운을 한껏 나누어 주고 있었다.

“딸을 위해서라면 없는 힘도 끌어내는 어머니!” 존경심에 나도 모르게 나온 말에 환자의 어머니가 응답했다. “날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묵주기도를 하면서 공원을 한 시간씩 걷다 들어와요. 안 그러면 힘이 없어서 아이를 볼 수 없어요. 딸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제가 먼저 아프면 큰일이잖아요.” 나는 환자에게도 어머니의 그 새벽기도를 들려주고 싶었다. “걸으면서 성모님께 어떤 기도를 전구(轉求)하세요?” 나의 질문에 환자의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가 아주 아주 오래 살게 해달라고요. 이 아이보다 며칠만 더 늦게 데려가시라고... 딸을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게 아니라면 저라도 아이의 눈을 감겨줄 수 있게.”

번제물로 바칠 양이 어디 있는지 묻는 이사악에게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라며 아들과의 마지막 길을 함께 걸었던 아브라함처럼, 이 연약한 노인도 자신의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온몸으로 묻고 있는 딸에게 엄마가 며칠 더 오래 살 거라고 말하며 딸과의 마지막 길을 함께 걷고 있다.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느님 앞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길을 나선 아브라함처럼, 줄지에 번제물처럼 병상에 누워버린 소중한 딸 앞에서 수없이 많은 불면의 밤을 지냈을 이 환자의 어머니는 그저 끝까지 딸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은총만을 청하며 오늘도 새벽 4시의 공원 길을 걷는 중이다. ☪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7/5(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교구 소식

고3·일반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7/7(주일) 13:30

장소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최대한 신부와 함께하는 청년 인문학 파정

일시 7/6(토) 15시 ~ 7(주일) 13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주제 현대를 사는 젊은 신앙인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

교재 다미앵 클레르제-귀르노, 「무기력한 날엔 아리스토텔레스」, 자음과모음, 2018

대상 20~30대

회비 6만원 (교재 미포함)

문의 031-850-1446 선교사목국

신청 ▶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

일시 6/25(화) 10:30 묵주기도, 11시 미사

장소 참회와 속죄의 성당

주례 손희송 주교, 의정부교구 사제단 공동집전

주관 031-941-6238 민족화해위원회

파주 EXODUS 사회교리 특강 안내

※ 6월~8월 사회교리는 쉽니다. 9월부터 새로이 시작됩니다

의정부교구 신앙의 길 제13기 순례단 모집

순례일정 9/21~11/9, 매주(토) [8구간, 약 103Km]

사전모임 9/7(토) 14시, 양주순교성지

인원 75명 (누구나-교구 신자 우선)

참가비 10만원 (청년 50% 지원)

신청 교구 홈페이지 또는 순교자공경회 다음 카페에서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cujbmhs@hanmail.net

접수 7/17(월)까지 (선착순, 참가비 입금 순)

문의 031-850-1498 순교자공경위원회

2024 청년 DMZ 평화의 길

날짜 6/29(토)~30(주일) [1박 2일]

장소 파주-연천 (JSA성당 방문 포함)

회비 6만원 / 선착순 80명

문의 031-941-2766, www.pu2046.kr 민족화해센터





미사 · 피정 ▶▶

6월 민족화해 하늘지기 후원회원 미사

일시: 6/25(화) 11시 (10:30 묵주기도)

장소: 참회와 속죄의 성당

※ 6월 월례미사는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로 대체합니다.

의정부교구 5지구 영성 피정

일시: 6/24(월) 13:40~16:30

장소: 화정동 성당 403호

강사: 김대영 베드로 신부 (전주교구)

문의: 010-8917-0090

성지순례 & 성베네딕도왜관(신축)수도원 전례

8/17(토)~19(월) 원주~청주5~안동7

8/24(토)~26(월) 수도원~대구17

10/12(토)~16(수) 울릉도, 독도~수도원

출발: 서울 명동 / 문의: 010-3807-178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피정

개방의날 무료피정: 7/5(금), 매월 첫(금) 10시~15:30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대침목피정: 8/16(금)~18(주일)

다네이영성수련피정: 8/22(목)~25(주일)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청주 초정성령회관 치유 피정

일시: 6/29(토) 14시 ~ 30(주일) 14시

장소: 청주 초정성령회관

강사: 김웅열 신부, 김완식 요셉

진행: 고영민 안드레아 (음악부)

회비: 2만원 [청소년 무료]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7/5(금)~7(주일)

효소단식: 7/11(목)~14(주일), 8/9(금)~12(월)

성경완독: 7/26(금)~8/3(토), 8/23(금)~31(토)

문의: 010-3340-0201 형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7/19(금)~22(월), 8/16(금)~19(월)

9/20(금)~23(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비용: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6/28(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성도 신심의 성장 방법

강사: 이병근 신부 (인천교구 원당동 주임)

문의: 010-2127-0032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우도해변포함: 7/12(금)~14(주일)

7/20(토)~22(월), 7/25(목)~28(주일)

8/1(목)~4(주일), 8/6(화)~8(목)

8/13(토)~16(화), 8/24(토)~26(월)

문의: 064-796-4182, 02-773-1455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시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강사: 6/25 이상기 가브리엘 회장

문의: 010-5514-4077 회장

성모승천 전례 피정

일시: 8/13(화) 16시 ~ 15(목) 13시

장소: 왜관 피정의 집

회비: 30만원 (접수 후 입금) /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6791-0071



교육 · 모집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하계 수영장근무자 모집

채용: 인명구조원, 인명구조원 보조, 간호사(조무사)

접수: 6/28(금)까지, service@hanmaum84.com

문의: 031-840-0018 활동운영팀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중증장애인가주시설 해밀 직원채용

분야: 생활재활교사(여) ○명, 채용시까지

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031-965-0028 해밀

※ 자세한 사항은 www.haamil.or.kr 참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 02-764-4741~3

www.holyfcac.or.kr

예비자 통신교리 -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1만원

주소: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 5234호

문의: 02-2274-1843~4, www.cdcc.co.kr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 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미사반주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일시: 7/1(월~토)부터 10주

문의: 02-338-3793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제21회 대안 좋은학교 연수

날짜: 7/20(토)~21(주일) [1박2일]

장소: 양업고등학교

대상: '좋은(Quality)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

접수: 7/9(화) 10시부터 (선착순 마감)

회비: 8만원 (식비 포함) / 문의: 043-260-5076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노스클럽사회적협동조합 무료공방 회원모집

시간: 15시~17시 / 대상: 초등 1,2학년

장소: 평내동 다모아프라자 809

회비: 노스클럽회원 전액 무료

문의: 031-559-3353

2024 가톨릭 뮤직 캠프

가톨릭성가를 통한 발성 집중 레슨 캠프

날짜: 8/23(금) 17시 ~ 24(토) [1박2일]

장소: 파주 민족화해센터 / 회비: 15만원

과목: 여성, 남성, 기초발성반 [50명 선착순]

주관: 모니카교회음악원

문의: 010-5245-2848 심준보베드로

대건카리타스-조이빌리지(중증발달장애인가주시설)직원 모집

분야: 사회복지사(교대근무) - 만 60세 이하

주소: 파주시 광탄면 심곡로 76-25

문의: 031-947-2720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여름캠프 보조지도자 모집

업무: 어린이신앙캠프 보조 진행

문의: 031-840-0018 활동운영팀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성 소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모 임	한국외방선교수녀회	6/29(토) 14시	서울 보문동 수녀원	010-9353-1773 (미리 연락)

주교좌 의정부 성당 사무원 모집

인원: 계약직 사무원 1명 (1년 후 정규직 전환 가능)
근무: 주5일 40시간(토·일 근무, 주중 2일 휴무)
자격: 세례 받고 성실하며 책임감 강한 분
PC(한글, 엑셀, PPT 등) 활용 능숙,
자격증(회계, 사무, 운전면허 등) 소지자 우대
업무: 사무, 회계, 시설 관리, 각종 행사 지원 등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접수: 방문, 우편, 이메일 / 채용시까지 (전화 사절)
※ 자세한 내용은 굿뉴스 및 교구 홈페이지 참조

안내 · 기타 ▶▶

가톨릭합창단 세인트에프렘양상블

제7회 정기연주회
일시: 6/28(금) 19시
장소: 주엽동 성당 대성전
문의: 010-5446-7383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9/21(토)~26(목) 베트남, 마카오 (172만원)
10/10(목)~19(토) 서부지중해 크루즈 (539만원)
10/15(화)~26(토) 산티아고 도보순례 (480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신문투어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야외수영장 개장

주말 개장: 7/13(토)부터 매주 토, 주일
완전 개장: 7/22(월)~8/18(주일)
(개인 및 단체 하루이용 가능)
입장료: 15,000원 (그날막 무료)
문의: 031-840-0018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운영 양로원 기금
가격: 청국장(500g) 1만원, 연잎밥 1만원 (택배 가능)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한 여름밤의 꿈 3

〈모두 함께하는 힐링의 행복한 추억 담기〉
유럽에서 수학한 성악가 외 다수 출연
성가, 가곡, 팝송, 포크송, 트로트 등
일시: 7/5(금) 19:30
장소: 호평동 성당 대성전 (무료)
문의: 031-592-2554 (예비자 및 냉담자 환영)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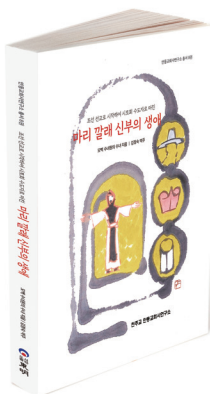
8/19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525만원)
9/24 이탈리아 일주 (11일, 545만원, 동반자 50만원 할인)
10/14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5만원)
10/23 발칸3개국 메주고리에 (12일)
10/21 산티아고 107km 도보 순례 (12일)
11/21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10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하늘의문 성당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30년, 추가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8/6(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45만원)
9/26(목)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10일, 440만원)
10/9(수)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70만원)
10/22(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11/4(월) 알프스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53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조선 선교로 시작하여 시토회 수도자로 마친

마리 깔레 신부의 생애

모백 수녀원의 수녀 지음 | 김정숙 역주 | 276면 | 15,000원 | 안동교회사연구소
문의 | 054-858-3111~3 천주교안동교구청 사무처

도/서/소/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Adveniat regnum tuum).”

깔레 신부는 박해시기 조선에서 교우촌을 사목했고, 병인박해 시기에는 중국에서 조선 순교자 전기를 저술하여 병인 순교자를 시복시성의 1차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 저술에 결정적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병인박해 시기 차쿠 성모설지전에서 함께 일했으나 끝내 조선에 입국하지 못한 조선선교사들, 특히 마르티노 신부와 리샤르 신부의 활동을 보여준다.

이 책은 깔레 신부가 영성지도를 하던 모백 수녀원의 한 수녀가 신부의 일생을 따라가며 이러한 내용들을 세밀히 적어놓은 전기(傳記)이자 그의 영성을 만날 수 있는 종교서적이다. 또한 역주자 김정숙도 그만큼 세밀히 주의를 기울여 작업했다. 아울러 부록으로 실린 ‘강신부 훈계’는 깔레 신부의 가르침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

하느님 백성의 구체적 현존, 교구 (Dioecesis)

교구(敎區, dioecesis)란 가톨릭교회 전체를 뜻하는 ‘보편 교회’를 지역적으로 구분한 하나의 개별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주교에게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 사목하도록 위탁”된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주교교령 11항)으로서 교구장 주교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입니다. 교구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주교좌 성당이 자리하거나 주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됩니다.

교구를 뜻하는 라틴어 [디외체시스](dioecesis)는 원래 로마 제국 시대의 행정 구역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방대한 영토를 [디외체시스]로 구분하였는데, 황제 디오클레시아누스(Diocletianus, 284~305년 재위)는 293년 로마 제국을 재편성하면서 전체 로마 영토를 직할지인 로마와 12개의 [디외체시스]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용어가 교회에 들어온 건 4세기경이고, 13세기에 들어 교구의 의미가 법적으로 확정되면서 주교가 다스리는 교회의 하나의 지역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교구는 통상적으로 특정한 경계로 나뉘는 지역적 성격을 갖지만(속지주의), 예외적으로 동방 가톨릭교회나 군종교구처럼 전례 예법이나 특정 목적에 따라 지역과는 무관하게 설립된 교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정식 교계 제도 설정과 함께 교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의 신자들과 본당들, 주교좌 성당 그리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제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직자를 양성하고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재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선교 지역에 교구가 설립되는 과정은 [지목구]-[대목구]-[교구]의 순서를 거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831년 9월 9일에 조선대목구가 설정되었고, 1962년 3월 10일에 교계 제도가 설정되면서 서울교구, 대구교구, 광주교구가 대교구가 되고 이때 다른 교구들도 설립되었습니다.

서울 관구	대구 관구	광주 관구	-
서울대교구 (1962)	대구대교구 (1962)	광주대교구 (1962)	군종교구 (1989)
춘천교구 (1962)	부산교구 (1962)	전주교구 (1962)	
대전교구 (1962)	청주교구 (1962)	제주교구 (1977)	
인천교구 (1962)	마산교구 (1966)		
평양교구 (1962) - 침묵의교회	안동교구 (1969)		
함흥교구 (1962) - 침묵의교회			
수원교구 (1963)			
원주교구 (1965)			
의정부교구 (2004)			
덕원자치수도원구* (1940)			()는 교구 설립 연도

한편, 어떤 교구의 지역이 너무 넓거나 신자 수의 증가, 국가 행정 구획의 변경 등의 이유로 새로운 교구가 설립되기도 합니다. 의정부교구가 서울대교구에서 분리되어 설립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 교구는 2004년 6월 24일에 설립되어 올해로 교구 설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